국제교류수업 연계 현장체험 본격

영선고, 일본 토우아대 대학 프로그램 참여

한들고, '창의 경영' 주제 중국 현지기업 방문 진로탐색 프로젝트 수행

전북 학생들의 해외연수가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도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영선고가 일본 토우아대학교 일본어캠프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북 학생들의 해외연수가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도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및 세계시민으로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국제교류수업 학교 공모를 통해 40개교를 선정했고, 630여명의 온라인공동수업 및 국제교류수업 연계 학생들이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한다.

국제교류수업 학교는 해외학교와 매칭해 온라인공동수업을 실시하고, 수업을 연계한 주제 탐구 및 학생 대면 교류 활동을 위해 교류국을 방문하는 사제동행형 해외 현장체험학습으로 운영된다.

지난 5월 전주근영중과 여산고를 시작으로 해외 매칭학교와 온라인공동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은 지난 6월 25일 영선고를 시작으로 11월까지 38개교가 학교별 프로그램 및 일정에 따라 10여 개 국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은 교류국 현지에서 언어 및 문화 콘텐츠를 직접 배우고 체험한다.

첫 번째로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영선고는 일본 토우아대학교와 MOU를 통해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현지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현지 학생들과 모둠별 주제 토론 및 양국 문화를 교류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

해외연수에 참여한 영선고 학생은 "영상으로만 보았던 곳을 직접 방문해 체험하면서 일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면서 "양국 간의 역사 문화에 대해 현지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통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한들고는 중국에서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창의 경영을 주제로 현지 기업 등을 방문해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상반기 각 지역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해외 문화체험이 순조롭게 마무리돼 가고 있다"면서 "사제동행 해외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로 열린 교실에서 언어·문화·지속가능한 목표를 주제로 배우며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농촌 ESG 활동 '눈길'

전주대 농촌봉사활동단, 밭 폐비닐 제거 나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농촌봉사활동단은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뿐 아니라 농촌 ESG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연일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전북 고창, 정읍 지역 10개 마을에서 전주대학교 학생 400여 명이 농촌 일손을 돕기를 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해 ESG 활동도 전개했다.

농촌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마을을 한 바퀴를 돌며 청소하기도 했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촌지역의 위험 요소를 파악해 수리나 보수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밭에 폐비닐 제거 활동은 비닐이 토양에 녹아들지 못해 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실시됐다.

배지훈 총학생회장은 "전주대 농촌봉사활동단은 이번 농활 기간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 조성에 일조하고자 노력하였다면서 앞으로도 ESG 활동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와 농촌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과 행동의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비전대 신임 총장 선임 절차 착수

신동아학원, 14일까지 후보자 지원서 접수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이사장 차종순)은 전주비전대학교 제17대 총장 선임을 위해 지난달 30일 총장 초빙공고를 내고 신임 총장 후보자 모집에 나섰다.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은 6월 3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주간 총장 후보자 지원서를 접수한다.

지원 자격은 △기독교 정신 구현의 교육비전을 가진 분 △각종 국책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 △대학 주요 지표 경쟁력 제고 및 재무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 등으로 세부 내용은 전주비전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지원서 접수가 끝나면 총장 추천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1인을 총장으로 선임하게 된다.

전주비전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위원장 장덕순) 측은 "이번 총장 선임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전주비전대학교를 명실상부한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지원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은 지난 1953년 학교법인 영생학원으로 최초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됐으며, 현재 전주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 전주영생고, 전주대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해상 유출 기름 흡착 새 흡착제 개발 연구

전북대 강진혁 대학원생 국제재료학회 우수포스터상

전북대학교 강진혁 대학원생(탄소융복합재료공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지도교수 남창우)이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빠른 속도로 흡착할 수 있는 새로운 흡착제 개발 연구 성과를 발표해 2023 국제재료학회(CCIM2023)에서 최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

강 대학원생은 이 학회에서 '성분용액 동결 건조 기반으로 제조된 직렬화된 강자성 셀룰로오스 스펀지 연구'(Mono-domain Structured Ferromagnetic Cellulosic Sponge Fabricated By Using Binary Solution Freeze Casting)에 대해 발표했다.

강 대학원생은 학부생 신분이었던 지난해 합성 고분자가 아닌 폐나무에서 셀룰로오스 기반의 기존보다 4배 이상 빠르게 흡착하는 흡착제 개발 연구 논문을 환경 분야 세계적 저널에 제1 저자로 게재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기존의 셀룰로오스 기반의 흡착제의 성능을 더욱 향상할 수 있었다. 셀룰로오스 기반 흡착제는 내부 기공 형태가 복잡한 구조인데, 본 연구에서 강 대학원생은 동결건조 방식을 이용해 일정한 기공 형태를 갖도록 하여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속도와 흡착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

실제로 강 대학원생은 다공성 구조 형태 조절을 통해 기존 셀룰로오스 보다 3배 정도 기름을 빠르게 빨아드리는 성능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강 대학원생은 "이번 성과는 학부 때부터 이어온 유수 분리용 흡착제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친환경적이면서도 다양한 오염물질에 반응하는 물질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복합재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단'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은 '2023년 IB 프로그램 특강 및 설명회'를 지난달 30일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교원과 교육전문직원·학부모·도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전북미래학교로서의 IB 프로그램 운영 이해

도교육청, 교원 등 대상 설명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IB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마련했다.

IB 프로그램은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이하 IB)가 개발·운영하는 국제 교육과정이자 평가 프로그램이다.

전북교육청은 '2023년 IB 프로그램 특강 및 설명회'를 지난달 30일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교원과 교육전문직원·학부모·도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전북미래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유형으로 도입되는 IB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국제고에서 IB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한 경험이 있는 반포고등학교 하화주 교감이 참여했다. 하화주 교감은 'IB 프로그램 이해'를 주제로 IB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 글로벌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역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정책 안내도 이어졌다. △전북교육청의 IB 도입 배경 △전북교육청의 IB 프로그램 추진 계획 안내 △전북미래학교로서의 IB 준비학교 운영 △IB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특강을 시작으로 IB 프로그램에 대한 교원, 학부모 등의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IB 협의체 구성·운영, IB 연구회 운영, 연수 지원, 특강과 설명회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은 국가와 지역 차원을 넘어선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학생 선택의 자율성 확대의 일환으로 IB를 도입하고자 한다"면서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통해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고, 전북 교육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국제개발협력·공적개발원조 ODA 이해 증진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전북대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이달 ODA 정규교육

KOICA 프로젝트 이해·PDM 작성 실습 등 순차 진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가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2023 ODA 정규교육'을 실시한다.

ODA 정규교육은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한국국제협력단), ODA교육원,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공동 주관으로 운영된다.

이번 ODA 교육과정은 국제개발협력 주요 이슈 및 이론을 다루는 3개의 일반과정과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3개의 사업관리과정, 총 6단계별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KOICA 프로젝트의 이해', 'PDM 작성실습', '모니터링과 평가(M&E)'의 3가지 과정이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KOICA 프로젝트의 이해'는 13일과 14일 진행된다. KOICA 사업 참여 방법 소개부터 프로젝트의 이해, 사업기획, 조달, 집행, 운영 및 관리, 사례 소개까지 총 6개의 모듈로 구성돼 우리나라의 대외 무상 원조의 주요 형태인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PDM 작성실습'은 20일과 21일 운영된다. PDM은 Project Design Matrix의 약자로, 프로젝트의 계획 단계에서 주요 요소를 일람표로 작성하여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도구를 말한다. 소위 개발협력의 언어라 불리는 PDM에 대해 개요, 활용법, 작성 실습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수강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높일 예정이다.

'모니터링과 평가(M&E:Moniterong &Evaluation)' 과정은 26일과 27일 운영된다. M&E의 필요성과 의의를 시작으로 성과중심 M&E 개념 및 시행 절차, KOICA사업의 성과관리 체계와 도구, 프로젝트 평가의 이해, 프로젝트 M&E실습 1·2단계로 구성돼 있다. 프로젝트 성과관리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설계하는 실습을 통해 수강생들의 프로젝트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각 과정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교육장(전주상공회의소)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신청은 5일까지로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나 전북국제협력진흥원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문화예술 분야 학술연구 상호 교류 협력

전북대 예술문화연구소-서울대 동양음악연구소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예술문화연구소와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 동양음악연구소가 문화 예술 연구 및 인재 교류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전북대 신은주(한국음악학과) 예술문화연구소장과 서울대 성기련(국악과) 동양음악연구소장은 한국음악학을 포함한 문화 예술 연구 및 인재 교류를 위한 '학술연구 상호 교류·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은 한국음악학과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예술 분야 공동학술대회 개최 및 연구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술정보 및 자료 공유에 이어 학술연구와 관련한 인력 교류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을 이룰 계획이다.

전북대 신은주 소장은 "상호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된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 예술과 관련된 학문적인 역량 또한 강화하겠다"라며 "한국음악학 및 문화 예술 분야 연구를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했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도교육청, 고위공직자 등 대상 '권역별 청렴교육'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5급 이상 고위공직자, 장학관 및 교(원)장을 대상으로 '2023년 권역별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30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진행된 이번 청렴교육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전북교육청 소속 5급이상 고위공직자, 장학관 및 교(원)장 8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교육청은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청렴문화를 실천하고, 직장 내 갑질문화를 개선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서거석 교육감의 청렴특강을 시작으로 △청렴연극공연 △갑질예방교육 △청렴정책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강의 위주의 연수에서 벗어나 공연 등 새로운 형식의 청렴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이날부터 이달 7일까지 교직원 2,800여 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청렴교육'을 5회에 걸쳐 운영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직장내 괴롭힘 등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연극으로 풀어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신뢰는 청렴에서 시작하며, 이는 공직자의 기본 마음"이라면서 "청렴은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하지만 기관의 책임자이신 고위공직자들께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청렴문화를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